“넘어져도, 지쳐도 괜찮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

정순애 작가 디카시집 ‘괜찮아’ 출간

“첫 시집에서 삶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면서도 꺾이지 않고 자라는 나무 같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한마디로 줄이면 ‘괜찮아’라는 말이더라고요. ‘넘어져도 괜찮아! 지쳐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이 구절이 이번 시집 전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사진작가 정순애가 두 번째 책이자 첫 디카시집 ‘괜찮아’(그린출판刊)를 펴냈다.

2021년 첫 시사진집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에서 비와 바람으로 인생의 시간을 빗대 보였던 그는 이번에는 사진과 5행 이내의 짧은 시를 엮은 디카시를 독자 앞에 내놓았다.

이번 시집에는 약 5년 동안 써온 디카시와 그에 어울리는 사진 작품 150여편이 4부 구성으로 실려 있다. 목차는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로 나뉜다.

사계절 담은 시·사진
150여편 수록
내달 14일까지
ACC디자인호텔 전시

작가는 “봄에는 새싹과 꽃처럼 피어나는 기쁨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땀과 눈물이 섞이는 고단함을, 가을에는 낙엽 속 묵직한 그리움을,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담았다”며 “사계절을 따라 걸으며 삶의 희로애락을 디카시로 풀어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표지에는 노란 캐모마일 꽃이 자리한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딸이 디자인을 맡았다. “딸이 엄마 시집 제목이 ‘괜찮아’니까, 표지도 긍정의 힘을 담고 싶다고 했어요. 캐모마일의 꽃말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 치유의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힘든 시기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죠.”

작가는 사진을 “예쁜 장면을 쫓는 일이 아니라, 자기만의 철학을 불어넣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냥 아름다워서 찍은 사진은 그저 사진일 뿐이지만, ‘왜 이 장면을 찍는가’에 대한 생각과 나만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예술이 된다”며 “사진을 찍을 때부터 스토리를 정해놓고, 그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은 뒤 글로 다시 풀어내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사진작가로서 행보도 꾸준하다. 그는 지난해 제40회 무등미술대전에서 작품 ‘인생길’로 최고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굽이진 길 위를 걷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담은 사진에 “가는 세월 오는 세월/굽이진 허리 등선 위로/걸어오는 청춘의 행진/교차하는 두 갈래 길”이라는 짧은 구절을 붙여, 우리네 인생길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우리의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 오가는 인생의 교차점을 사진과 시로 표현한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인생’과 ‘길’이라는 주제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고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디카시집 발간과 함께 출판기념 사진초대전도 열린다. 시집 ‘괜찮아’에 실린 작품 가운데 25점을 선별해 선보이는 전시가 오는 12월14일까지 ACC디자인호텔 갤러리에서 관객을 만난다. 사진과 함께 이에 대응하는 디카시 25편을 한 화면처럼 구성해, 벽에는 사진을 걸고 그 아래에는 한 줄 한 줄 잘라낸 시 구절을 따로 부착했다.

전시 기간 중인 24일에는 ㈔한국생명사랑재단이 같은 공간에서 ‘희망의 씨앗 후원의 날’을 연다. 작가는 이날 전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집과 사진 작품 수익의 일부를 생명나눔 기부금으로 후원할 계획이다.

“지금 시대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다들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걸 느낍니다. 이 시집이 살아가는 길에서 잠시 주저앉고 싶을 때, 사진 한 장을 보고 짧은 시 한 줄을 읽으며 ‘그래도 괜찮아’ 하고 마음을 토닥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최명진 기자

복잡한 공식 대신 삶에 닿는 ‘양자 교양’

채은미 고려대 부교수 ‘처음 만나는 양자의 세계’ 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집 안의 LED 조명 아래서 책을 읽으며,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을 켜는 일상적인 순간마다 사실은 ‘양자 역학’이 숨어 있다. 하지만 막상 양자 역학을 공부하려 들면, 수식과 낯선 개념 앞에서 쉽게 포기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양자 역학이 일상의 언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책이 발간됐다. 채은미 고려대 물리학과 부교수가 펴낸 ‘처음 만나는 양자의 세계’(북플레저刊)다. 저자는 스마트폰·LED 조명·내비게이션 등 일상적 기술 속에 숨어 있는 ‘양자 현상’을 짚어내며, 낯설기만 했던 과학을 친근한 교양의 영역으로 이끈다.

그는 “우리가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를 몰라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듯, 양자 역학도 복잡한 수식보다 그 안의 현상과 기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파동-입자 이중성, 전자의 드 브로이 파동, 슈뢰딩거의 고양이 등 교과서에서 스쳐 지나갔던 개념들을 생활 속 사례와 비유로 풀어낸다. 난해한 수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해의 흐름을 끊지 않는 설명 방식을 택해 ‘읽으면서 바로 이해되는’ 양자의 세계를 지향한다. 독자가 양자 역학을 자연스럽게 체감하도록 돕는 구성이다.

특히 양자 컴퓨터 영역을 비중 있게 다루며, 급변하는 연구·산업 흐름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한다. 쇼어 알고리즘이 암호 체계에 미칠 파장, 초전도·중성 원자·이온 트랩·광자 기반 등 주요 양자 컴퓨터 기술의 원리, 그리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과 기업이 뛰어드는 경쟁 구도 등을 폭넓게 소개한다. 양자 컴퓨터가 물류·의약·신소재·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 그 미래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한다.

이처럼 책은 양자 역학의 기원부터 오늘의 기술, 미래의 전망까지 한 권에 담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양자 입문서로 자리매김한다. 과학이 교양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험을 선사하며 다가오는 ‘양자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든든한 첫걸음을 제시한다.

한편 저자인 채은미 교수는 도쿄대학교 물리공학과 학·석사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교토대학교·도쿄대학교에서 연구와 강의를 이어온 국내 대표 양자 컴퓨팅 전문가다. /최명진 기자

새로 나온 책

▲언폴드(UNFOLD)=김경주 글·그림

가장 추웠던 인생의 ‘겨울’, 상실과 좌절의 12월에서 시작해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고 자신을 다스리는 ‘봄’, 새로운 도전과 균형을 찾는 ‘여름’, 그리고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가을’까지. ‘무너짐-회복-성장-확장’의 여정을 12개월의 흐름에 따라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극한의 외로움 속에서 작가는 ‘내 생각이 나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가장 다정한 친구가 돼주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매일의 그림과 짧은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간다. /후즈갓마이테일·2만1천원

▲샤이=맥스 포터 지음, 민승남 옮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영어로 옮긴 번역가 데버라 스미스만큼 한강 작가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몫을 한 인물이 있다. 당시 영국 출판사 그란타의 편집자였던 맥스 포터. 데버라 스미스가 건넨 ‘채식주의자’ 샘플 번역본을 읽고 출간을 추진한 장본인이 바로 그다. 그런 그가 최근 신작 소설 ‘샤이’를 펴냈다. 이 책은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하지만 도망치지 못하는 남자아이의 심경이 너무나도 잘 그려진, 곧 부서질 것처럼 연약하면서도 ‘6억 년 된 부싯돌’처럼 단단하고 강렬한 작품이다. /다산북스·1만6천800원

▲도파민 가족=이은경 저자

거실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AI가 양육에 개입하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이 된 지금,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산만하다. 그동안 많은 부모가 문제의 원인을 ‘아이’에게로 돌려왔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의 집중력이 아니라 가족의 시스템이다. 15년간 교사로서 이후 10여 년간 교육 전문가로 현장을 누벼온 이은경 대표는 수천 명의 아이와 부모를 지켜본 결과, 이 현상을 단순한 스마트폰 중독이 아닌 가족 시스템의 붕괴 신호로 읽어낸다.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은 집중력이 아니라 관계다. /흐름출판·1만8천원

▲달라도 친구니까=에르베 르고프 지음, 이슬아 옮김

모든 게 하기 싫은 불곰과 무엇이든 하고 싶은 라쿤의 우정 이야기. 라쿤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일마다 ‘싫어!’라고 말하는 불곰. 하지만 다음 장면에는 어느새 라쿤과 함께 산책을 하고, 목욕을 즐기고, 베리를 맛보며 웃고 있는 불곰의 모습이 나온다. 서로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무언가를 함께 할 때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품이다. 달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다르기에 더 깊어지는 우정의 따뜻한 힘을 보여 준다. /올리·1만5천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지국
· 중앙지국 222-8171 · 상무지국 453-2554 · 유동지국 222-8171 · 오치지국 261-9461
· 산수지국 224-4188 · 광천지국 374-2120 · 운암지국 529-3548 · 문흥지국 261-9462
· 학운지국 673-6836 · 진월지국 676-2726 · 용봉지국 261-1503 · 일곡지국 573-3200
· 화정지국 372-9140 · 봉선지국 673-6836 · 신가지국 954-1420 · 첨단지국 971-7374
· 금호지국 376-7153 · 백운지국 673-0123 · 양산지국 574-3745 · 치평지국 371-9584
· 풍암지국 603-0311 · 두암지국 266-1920 · 하남지국 951-9954 · 수완지국 955-0451
· 노대지국 674-3581 · 농성지국 362-4102 · 운남지국 952-1687 · 광산지사 944-0993

지방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지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